

강해설교: 본문 석의에서 설교 구성까지 *

출애굽기 2:1~10을 중심으로

黃 昌 起
(고신대 교수)

본문의 석의(exegesis)의 목표는 주석 그 자체가 아니라 설교이다.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석의과목은 설교문(sermon)작성까지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육 목적상 석의와 설교를 연계하는 기본 요소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즉 본문을 석의(Exegesis)하여 지배적인 사상 (Theme)으로 요약한 후, 거기서 설교요지(Proposition)을 도출하고 이어서 설교문(Sermon)을 작성하는 것이다.(신학정론 제 8권 2호 1990:253~280). 본고에서는 출 2:1~10 을 어떻게 석의하여 설교하는지 그 작업 실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문의 석의 과정은 모형(예표)론(typology)을 중심으로 계시역사(구속사)적(redemptive-historical)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겠다. 설교문도 그 대지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정도에서 머물겠다. 그 다음의 작업은 설교학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성경 본문 해석에서 설교 대지 작성 방향까지만 다루는 셈이다. 그리하는 중에 성경분문이 예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암시하고자 한다.

1. 본문의 석의

우리는 설교하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교를 위한 석의 작업은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석의의 결론을 지배적 사상으로 요약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 속하는 석의 부분은 그 말씀(1992년 10월호)에 게재된 것인데 그 석의(exegesis)를 설교문(sermon)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
- 44. Wilckens (*An die romer*, pp. 310~19) emphasizes that Gen. 3 forms the hermeneutical horizon for the radical conclusions which Paul draws about sin and death.
 - 45. Wilckens (*an die Romer*, pp. 332~24) emphasizes the soteriological picture of Christ. Christ and Adam are not parallel "anthropological" models. Rather the "power of sin" has been replaced by the grace that comes through Christ, which is expressed in the reconciliation of sinners to God in Rom. 5:6~11.
 - 46. Cf. Dunn. *Christology*, pp. 105~11.

이하 여러 단계는 해석학 절차에 둑일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 설교는 성경 본문과 설교자 그리고 교회의 필요 이 셋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1. 본문의 문법적 해석

1.1.1 본문의 맥락을 파악한다.

우리 본문 출 2:1~10은 모세의 출생 및 유아기에 관련된 기사이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와서 크게 변성하여 세력이 막강하게 되자 바로왕의 박해로 큰 수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나면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가 나면 살리는(1:22) 그야말로 민족동화 내지 민족말살 정책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 본문 다음에는 모세가 광야로 피난가게 된 동기를 밝히고(2:11~15), 또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정착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다(2:16~22).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 양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파송하는 일들로 이어진다.

1.1.2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저자가 그 당시 원독자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본문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서 우리 말(또는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본문의 단어의 뜻, 숙어, 문장의 구문까지 또 전체의 구조까지도 대개 파악되어진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아마 우리말 성경을 백 번 이상 읽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해도 과언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원문에서 번역이 안되는 사람은 영어 성경 중 원어에 충실한 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리고 영어 (또는 자기에게 익숙한 다른 언어) 성경의 여러 역본을 대조하여 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절차라고 하겠다. 그것도 안되면 설교할 본문을 우리말 성경 그대로 써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의 여러 역본도 대조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중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여야 할 분야도 밝혀지고 이를 위해 어느 책을 참조하여야 하는지도 알게된다. 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지나쳐 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귀한 사실을 발견하는 수가 자주 생각 마련이다. 그 일례로 뒤에 제기된 질문이 대개 필자가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는 중에 나온 것이다. 번역은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고찰하는 방편 중의 하나일 것이다.

1.1.3 본문을 분석하여 요점 정리를 한다.

본문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단어의 배열, 문법적 특징, 반복 및 병행법 등의 문학적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어 생략한다. 본문을 번역하고 이렇게 본문의 제반 특징을 살핀 다음에는 요점정리(outline)를 한다.

- <ㄱ>모세가 버려짐(1~3절);
- <ㄴ>모세가 발견됨(5~6절);
- <ㄷ>모세가 보호됨(4절, 7~9절);
- <ㄹ>모세가 양자됨(10~11절);

이 구분을 본문의 내용을 정돈한 것으로 설교의 대지는 아니다. 그리고 요점 정리가 일목 요연한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주어가 모두 모세이며, 술어가 모두 피동태이며, 양식도 6글자 2단어로 표현된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물론 반드시 이런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대로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설교자의 정성이 담긴 말씀 준비가 된다는 말이다. 논문을 심사할 때 목차가 어느 정도로 잘 정돈되었는지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이 논문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하고 고심하였는지를 대개 알 수 있다. 목차에 일관성이 없도록 배열한 사람은 논문을 쓸 때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본문을 이 정도로 배열하도록 숙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1.1.4 본문 번역 이후에 주석을 보아야 한다.

위의 번역 작업은 설교 본문을 정한 후에 주석을 참고하는 이전 단계에 속한다. 자기가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번역해보기 전에 주석으로 바로 가서 주요 사항을 노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본문 번역도 하기 전에 주석으로부터 설교 준비를 하

는 사람은 남의 신학으로 본문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해석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할 길이 없고 자기 성장도 도모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자기가 한 설교들끼리도 모순이 생겨 교인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주석 사용의 일차적 목표는 자기가 한 석의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체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 말은 주석을 올바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말이다.

주석은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 본문 주해적인 것을 보되 근래 새로 나온 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석은 본문의 문학(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언어학 특히 어의론의 도움으로 발전된 신비평(New Criticism)의 영향 때문이다. 신비평 자체는 불신 문학가의 산물이기에 이로써만 생명력 있는 기독론적, 구속사적 메세지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문학적 특징 및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 성경에는 필요없는 말은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참조:요 21:25), 또 성경의 단어 뿐만 아니라 문장, 문단, 더 나아가서 전체 구조 까지도 영감을 치밀한 계획 아래 쓴 것이기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러한 작업을 요즈음 나온 주석에게 대개 잘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성경 사전, 성경신학 서적 참고 등 기본연구 상 필요한 것이 많으나 지면상 생략한다.)

1.2 본문의 신학적 해석

1.2.1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출 2:1~10은 모세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중에 태어나 구출받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극적인 기사이다. 본문은 모세의 전기적 요소를 담고 있기는 해도 모세의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다.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경관 내지 신학사상이 없으면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즉 “모세의 탄생”, “모세 어머니의 정성”, “모세 누이의 재치” 또는 “바로왕 공주의 사랑” 등등의 방향으로 본문을 윤리 도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 혁거세가 앞에서 태어나는 전설로 그의 위대성을 미화

하여 물 위에 뜬 것 같이, 노아의 방주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였다(창 6:14). 모세가 다른 히브리 사내아이가 죽는 중에 구원을 얻은 것 같아, 노아도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이 멸망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예표론적으로 원형으로 제 2의 노아라 할 수도 있다.

1.2.2.3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하나님에게 뽑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머리와 몸의 관계가 돋보인다. 즉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당시 또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것을 당하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모세가 나일 강에 던져졌는데(2:3),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아이들도 나일 강에 던져졌다(1:22). 모세를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는데(2:6), 히브리인의 사내아이들을 산파들이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2:24~25). 모세가 상자 속에서 우는 것은 편하지 못하여 운 것으로(2:6) 그가 고난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큰 고통 중에 살았다(1:11~14, 2:23).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서도 홍해 바다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즉 모세의 구출(exodus)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exodus)을 내다본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줌(구출:exodus)으로 애굽인 바로의 공주에게 삶을 얻었는데(2:9),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exodus)새에 은금 패물과 의복 등 많은 물품을 받아 나왔다(12:35~36).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사를 쳐죽여 모래에 감추었는데(2:12),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12:29~30), 애굽 군사가 홍해에서 떼 죽음을 당하였다(15:27~28). 모세가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잘못한 자에게 가서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니까 그가 모세를 거역한 것 같이(2:13~14).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인도자 모세를 거역하였다. 모세가 바로의 낮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2:15),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에게 쫓겨났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다. 모세가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4:24~26),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 전에 길에서 할례를 행하고(수 5:2)

~9), 유월절을 지켰다(수 5:10~12).

모세는 노아와의 관계에서는 원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는 모형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본문의 사건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1.2.3.4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

모세의 삶에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일어나는 것과 구원사적 관계를 절묘하게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것은 모두 출애굽(exodus)을 전후하여 일어난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별세=exodus, 누 9:31)을 예표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잡혀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 학정 밑의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 하늘에 오르시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모세와의 관계에서는 원형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표이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corporate) 의미로 참교회의 머리요 초점이라는 점이다(마 2:15, 롬 5:12~21). 마태복음의 첫 세 장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 하고 있다. 구약은 여럿(many)에서 그리스도 한 분(one)으로 줄어지고 신약은 한분(One)에서 여럿(many)으로 발전되고 있다. 즉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남은자→여호와의 종→예수 그리스도→12제자→70인 제자→120 문도→3000명→7 교회로 발전하여 신약의 모든 교회가 포함된다. 참교회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직 세상에 나지 아니한 택한 성도 모두가 포함된다.

1.2.2.5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과 우리(성도=교회)의 죽음 및 부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며 어린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요단강 물세례로 내다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찬으로 이어지는 구속 사건을 가리킨다. 이는 나아가서 우리(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본문을 보는 결과가 된다. 사실 아카드 왕 사르곤이 모세와 비슷하게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에 담겨 강에 버려졌다가 구출되어 결출한 영웅으로 왕이 된 이야기도 있고, 또 거지가 큰 부자가 되거나 왕이 된 주제가 담긴 이야기가 근동지역과 헬라 로마 사회에 32편이나 알려졌는데 (J.I. Durham, Exodus, 1987:15) 우리 본문도 이런 문학적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실로 성경을 고대 이야기 책 정도로 여기는 불신자의 처사이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인간 중심의 윤리 도덕적으로만 파악하는 교역자가 아주 많다(꼬집어 지적하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성경 이해면에서는 그런 교역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는 실로 두려운 일이다.

1.2.2 본문을 계시사적으로 이해하여하 한다.

설교자는 본문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도행전 기자가 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관련되는 부분(7:17~29) 또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11:23~29)를 참조 하여야 한다. 또 우리 본문이 구속 역사상의 위치도 파악하여야 한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구원 역사 전진 면에서 볼때 이 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야곱의 열 두 아들 가족으로 구성되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의 일을 다룬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 악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사이며 출애굽을 위한 준비 단계 중에서 모세 구출(exodus) 기사이다.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전체 구조를 포함한 문학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표면적 고찰이라면, 본문을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은 내면적 고찰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역사비평은 신비평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크게 교정되고 있지만 전자에 속하고, 상징어(symbolism) 또는 연상어(imagery)를 지닌 성경을 예표론(triology)에 의한 구속사 중심으로 보는 눈은 후자에 속한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설명(기사)문(narrative)의 단어선택, 그 배열 및 구조 자체가 계시사적인 면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본문 파악은 이 두 가지를 겸해야 한다. (필자의 졸고, 목회와 신학 1992년 9월호 참조). 그리고 성경을 구속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도덕

주의(moralism)와 풍유(allegory)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황창기, 월간목회, 1991<7 월>:89~94 참조)

1.2.2.1 유익한 질문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해보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는데 유익한 일이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설교자는 물론 모든 성경 연구자가 항상 묻고 그 답을 찾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여야 한다. 그 첫째는 “이 본문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는까?”라는 물음이고, 그 둘째는 “이렇게 쓰인 본문의 오늘날 우리(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리고 위의 기본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본문과 관련된 여러 질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아들이 준수하다는 말(2절)의 뜻은 무엇인가? 석달(2절)의 의의는 무엇인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3절) 물위에서 건침을 받은 것(5절)은 어떤 뜻을 가졌는가? 왜 여자들의 활동(모세의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 시녀)이 본문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사실을 기록하였는가(6절)? 아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6절)은 어떤 의미인가? 모세 어머니가 삶을 받는 것(9절)은 사건의 흐름상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본문에 기록한 것일까 또는 그 이상의 뜻이 있을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10절)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모세란 이름을 얻게되는 경위가 왜 기록되어야 하는가(10절)? 이상의 질문은 꼭 이 단계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본문 번역 중에 생긴 질문도 있고, 그 뒤에 발견된 사실을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석의 상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 형식을 빌린 것도 있다.

1.2.2.2 노아의 구원과 모세의 구원

이 두 관계는 예표론적 관련이 있다. 본문에서 모세는 물론 인한 사망에서 구원 얻었다. 이 사실은 노아가 물로 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당하는 멸망에서 구원얻은 사실과 비슷하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구원 받은 것 처럼, 노아도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다. 허브리어로 본문의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꼭 같은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두 사건에만 나온다. 모세의 갈대 상자기 역청과 자무진으로 방수 작업을

일으킴을 받아 하늘에 오르게 된 것을 가리킨다(엡 2:6; 롬 6:11; 갈 2:20).

요약하자면 본문을 구속사의 진전을 따라 모형(예표)론(typology)으로 관련시켜 살펴보니까, 본문의 사건 특히 모세의 삶에 일어난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세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바로 왕궁의 자유인이 된 것을 우리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 이 모세의 구원은 원형으로서 뒤로 노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 또 모세의 구원은 모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참조, R.M. Davidson, Typology in Scriptur, PP.388, 402~403), 이는 나아가서 예수님이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교회 즉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본문의 석의 결과는 3,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나에게 직접 연결시켜 준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2. 설교문 작성

석의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설교는 그 적용이라고 하겠다. 즉 저자가 그 당시의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설교자가 파악하였으면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설교이다. 설교를 전하기(delivery) 전에 설교문(sermon)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석의도 어렵지만 석의 후 설교로 전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성경 본문을 상징적이고 신학적인데 설교는 항구적인 진리(timeless trutty)로서 명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삶은 이런 고심을 안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삶이 곧 기도의 삶이다. 그것은 값진 고심이요 노력이다. 이 삶의 심도에 따라 자기 성장은 성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1 지배적인 사상을 표현해 본다.

지배적인 사상(theme)이란 본문을 석의한 후에 나온 그 중심사상(exegetical idea)인데 직관(intuition)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간결한 서

술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지배적인 사상은 본문에 대한 충실했던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석의의 결론이다(황창기, 신학정론, 1991: 271~272). 우리 본문의 지배적인 사상은 「모세는 사망에서 구원받아 왕궁의 자유인이 되었다」이다. 이 지배적인 사상은 많은 영적 학적 작업의 결과이다. 설교자는 본문을 석의하기 전에도 이 정도의 결론은 나올 수 있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지배적인 사상은 사실 설교문 작성 이전의 석의 단계에 속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여기서 다루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2.2 설교 요지를 작성한다.

설교요지는 명제(proposition)를 말한다. 이 절차는 석의와 그 지배적인 사상이 정하여진 후 설교로 바뀌는 첫 단계에 속한다. 설교요지는 설교의 중심사상(homiletical idea)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표시된다(황창기, 272~278). 설교요지는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함으로 고유명사와 과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설교요지는 암축된 설교로 교인들의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개인한 인상으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함축되어 외우기 쉬운 문장이면 더욱 좋겠다. 또 할 수 있으면 개인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personalized) 문장이면 좋겠다. 그러나 설교요지는 단문이어야 하고, 하나의 문법적 주어와 동사로 된 경구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설교요지가 나오지 않으면 석의에서 설교로 넘어갈 수 없다. 즉 설교문 작성이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 본문에서 설교를 최소한 두 편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요지는 <가> 「성도된 나의 신분대로 살자」<나> 「성도된 나의 특권을 만끽하자」와 같은 것이 되리라 본다.

2.3 설교내용을 정리한다.

본문을 석의해보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은 구원받은 모세의 신분과 그 특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초한 설교는 나<성도, 교회>의 신분과 특권에 대한 사항들이 설교의 내용이 되겠다.

2.3.1 첫 설교의 내용은 나의 신분이 구원 받아 성도(교회)가 되어진 점이다. 이 점은 모세가 갈대상자(3절) 속에서 구원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뒤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가리키며 방주는 또 우주 만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이것이 모세 언약 아래에서는 광야의 성막으로, 다윗 언약 아래에서는 성전으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성육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그와 연합된 교회(성도=우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진전한다. 이 교회(성도)의 특징도 아래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데 설교의 대지가 된다.

2.3.1.1 먼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활체인이 모세가 3달 동안 숨은 사실(2절)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경에 쓸데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3일 또는 3일은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이 있다. 부활한 성도의 삶을 교회의 교회의 형편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교에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2.3.1.2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모세가 준수하다(2절)는 점이 보여준다. 본문의 준수하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모세가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로 회복된 특성으로 준수하게 보였다는 말이다. 즉 상징적인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은 아이가 예쁘면 살리고 못생겼으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심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움(좋음)(마 7:11; 롬 8:28)은 성령(눅 11:13)과 관련되고, 복음과 연결되어(롬 10:15) 신자의 최종적 몸의 구속(롬 8:23)과 직결된다(참조:오병세 박사 회갑논문집의 필자의 출고). 이선(아름다움)을 위해 최고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설교에서 강조할 수 있다.

2.3.1.3 그리고 교회(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버려져 구원받기까지 여자들의 수종을 받은데서 볼 수 있다. 이 모세가 든 상자를 만들고(어머니), 지키고(누이), 발견하고(공주), 가져와(시녀), 열어보고(공주), 불쌍히 여겨(공주), 유모를 부르러(누이) 보내어(공주) 보내어(공주), 아이를 젖먹여 키우며(어머니), 삶을 지불한후(공주), 양자를 삼은(공주)일 등등, 이 일체에 수종을 여자들이 다 감당하였다. 여자의 후손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에 우리 본문에 여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이다. 성도(나)는 오직 신랑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진실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 것을 설교에 강조할 수 있겠다.

2.3.1.4 나는 성도로서 고난을 받아야 함을 상자에 든 모세가 우는 사실(6절)에서 찾아 볼수 있다. 자기가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롬 8:17, 벨 1:29). 기복신앙의 영향 때문에 과정은 무시하고 열매만 원하는 한국교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필요성을 구약에서 미리보여주니 설교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되겠다.

2.3.2 둘째 설교의 내용은 나의 성도(주의 자녀)된 특권이 되겠다. 우리 본문에 다음 몇 가지로 그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설교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설교의 대지는 반드시 본문의 순서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강해설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첫째 대지가 본문의 마지막에서 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2.3.2.1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자된 사실에서 (10절) 보여준다. 모세라는 히브리말은 “그를 물에서 건져낸 사실”(11 절)을 말하는데, 우리 석의에서 모세의 삶 자체가 사망에서 구원얻은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애굽말로 모세가 “소년 아이”, “아들”이란 뜻이다. 모세가 구원 받아 공주의 아들이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모세의 이름과 그의 삶에서 미리보여 주고 있다. 노아→모세→그리스도→성도(교회)로 이어지는 모형론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 바로의 공주, 왕궁은 모세가 물에 던져 저 사망에 처한 것과 비교하면 당대의 절대적인 권세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나타낸다. 즉 성도가 사망(어둠움, 속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빛, 자유)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권세와 특권을(엡 2:6)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특권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2.2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을 공주가 상자에 든 모세를 불쌍히 여긴 사실(6절)에서 보여준다. 우리 본문과 그 앞뒤에서 불

쌍히 여기는 모티브가 반복됨을 석의에서 밝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도록 배후에서 인도하심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로왕, 공주, 왕궁 등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관시킨 점을 이해못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안다.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 모형에서 애굽은 사망으로, 바로는 사탄의 우두머리로 고착시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등식관계는 본문의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본문에 바로 왕은 지역 왕을 상징한다고 범주화 내지 도식화로 무슨 전문 용어화 시키는 것은 모형론을 오해한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본문의 물은 “사망”과 연관되지만, 2장 16절 이하의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점은 그 문맥이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2.3.2.3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심을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키우고 샷을 받은 사실(9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시에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임을 석의에서 밝혔다. 아브라함도 (창12:16) 야곱도 (창32~33), 범제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도(삼상 6:17~18),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슥6:10~11), 많은 물품을 그 있던 곳으로 부터 취하여(spoiled)나왔다. 주후 30년에서 70년사이에 교회는 옛 언약을 취하였고, 지금은 세상을 취하여 모든 것을 그의 나라 안에서 가져오고 있다.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먹고 입는 것 = 인생의 삶에 기본적인 것)을 다 주심(마6:33)을 설교에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된다는 물질주의적 복음이 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4 제목을 확정한다.

설교에 대지가 나오고 설교문에 살을 붙인 다음에 제목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목은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 계속 생각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여기 이 단계에서 논한다. 우리 석의에서 나온 두 설교 제목은

(가) 모세의 구원은 곧 나의 구원

(나) 모세의 특권은 곧 나의 특권

이라 하면 설교 내용을 잘 대변해 줄 것 같다.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제

목이 성도 각 개인에게 직접관련되는(personalized)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교는 설교요지에서 발전하고 세부화되어야지 설교제목에서 출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다. 본문의 단어 선택과 배치를 위시하여 그 구조까지도 세밀한 배려하에 본문이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문이 모세의 삶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은 모세의 전기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이 사건은 40년 내지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상정하며, 나아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되어질 것을 내다 보도록 본문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진 방식 자체가 모형(예표)론의 유용성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그 유용성은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권세에 기초되었다. 그리고 모형론을 계시역사의 맥락에서 그 유용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상징과 모형론 자체를 성경 해석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고한다. 예를 들어서 물은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원칙은 어느 본문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직 본문의 문맥이 그 원칙을 결정한다. 모형론은 “성경에서 무엇은 무엇을 상징(말)한다.” 식으로 도식화되고 범주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모형론이란 고착된 해석학적 방법이 아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구속사의 전진을 무시하면 그 해석이 도덕주의로 전락하고, 본문의 문맥을 도외시하고 모형론이 도식화되면 풍유화로 전락한다. 필자는 위의 본문의 석의 및 그 적용이 도덕적이거나 풍유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성령론의 관점에서 본 체험의 문제

임 경 근

(고려 신학대학원 3년)

서 론

1. 문제의 제기

오순절 운동¹⁾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태동하여 겨우 1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 이 운동은 교파를 초월하여 ‘은사운동’²⁾으로 발전했으며, 최근 ‘제3의 물결’³⁾ 운동으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 교회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운동들의 특징은 ‘체험’에 있다.⁴⁾ 그들은 이 체험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아갔으며,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오순절주의 ‘계통’⁵⁾에서 성령 체험은 본질적으로 ‘성령세례’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1) “오순절 운동”(Pentecostal Movement) 또는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란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능력의 성령을 받은 사건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기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들의 교리의 특성을 표현한 용어이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πεντηκοστή 이데 이 말은 πεντηκεντα, 즉 50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다. 한국어 “오”(五)는 다섯 “순”(旬)은 10일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2) ‘은사운동’(Charismatic Movement)은 1960년 부터 시작한 오순절운동의 연장으로 오순절의 체험이 오순절 교회를 넘어서 각 교파를 침투해 들어간 운동을 가리켜 칭한 것이다. 이 운동은 ‘신오순절주의(Neo-pentecostalism)운동’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한다.

3) 이 운동은 1980년 이후에 미국의 풀러 교회성장학 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된 운동이다. 오순절 운동과, 신오순절 운동이 교회에 역동성을 주고 생명력을 주며, 신자의 봉사의 삶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분열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